손들고 항복하면 이기는 싸움

(출17:8~16)

8. 그 때에 아말렉이 와서 이스라엘과 르비딤에서 싸우니라
9. 모세가 여호수아에게 이르되 우리를 위하여 사람들을 택하여 나가서 아말렉과 싸우라 내일 내가 하나님의 지팡이를 손에 잡고 산 꼭대기에 서리라
10.여호수아가 모세의 말대로 행하여 아말렉과 싸우고 모세와 아론과 훌은 산 꼭대기에 올라가서
11. 모세가 손을 들면 이스라엘이 이기고 손을 내리면 아말렉이 이기더니
12. 모세의 팔이 피곤하매 그들이 돌을 가져다가 모세의 아래에 놓아 그가 그 위에 앉게 하고 아론과 훌이 한 사람은 이쪽에서, 한 사람은 저쪽에서 모세의 손을 붙들어 올렸더니 그 손이 해가 지도록 내려오지 아니한지라
13. 여호수아가 칼날로 아말렉과 그 백성을 쳐서 무찌르니라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말씀 중심으로 <손들고 항복하면 이기는 싸움>이라는 제목의 하나님 말씀 증거 합니다.

'손들고 항복하면 이기는 싸움'
싸움을 하는데 손을 들고 싸움을 하는 것은, 원래는 "손들고 꼼짝 마!"라는 군인들이 전쟁에서 무기를 버리고 손을 드는 것으로, 이제 내가 저항할 의지가 전혀 없다는 뜻을 가지고 있고, 상대방을 제압하려고 할 때에 제일 먼저 하는 말이 '손들고 꼼짝 마!'라고 하는 것인데, 선민이 하는 전쟁은 이렇게 항복할 때의 포즈를 취함으로 전쟁을 승리로 이끌 수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엄밀하게 말하면 선민은 전쟁을 치르면서 승리를 쟁취하는 사람들이 아니라, 하나님이 이루어 놓으신 승리를 내 것으로 받으면 되는 것이고, 우리의 삶이 매일 매일 승리로 가득 찬 삶을 살 수 있는 비결이 바로 손들고 항복하는 것인데, 손들고 항복한다는 것 자체가 결코 쉽지 않습니다.
여호수아가 산 밑에서 직접 전쟁을 하는 것처럼 전쟁을 하는 것이 아니고, 우리의 전쟁은 모세가 산 위에서 손을 든 것으로 항복하는 것이고, 전쟁을 하지 않으면 항복할 수 없습니다.
즉, 항복이 승리인데 내가 항복하기 위해서 전쟁을 해야 하고, 내가 전쟁에서 항복을 해야만 산 아래의 삶의 현장에서 진짜 승리가 일어나게 됩니다.

말이 이상하죠?
우리에게 승리가 주어지기까지 모세의 전쟁과 여호수아 전쟁의 두 전쟁이 일어나야 하는데, 모세의 전쟁 목적은 항복이고 지는 것으로 지기 위해서 싸우는 것이고 싸우지 않으면 질 수 없습니다. 진다는 목표에 도달하기 위해 엄청난 싸움이 필요하고, 그렇게 할 때에 산 아래에서 여호수아의 싸움이 일어나고, 이 여호수아의 싸움은 내용적으로 하나님이 쟁취하시는 싸움으로 승리가 주어지게 됩니다. 이러한 두 가지 전쟁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쟁취하신 승리가 나의 승리가 되는 것이고, 그러기 위해서 나는 항복이 목적인 싸움을 해서 반드시 목표에 도달해야 합니다.

도대체 이것이 무슨 이야기일까요?
오늘 본문은 해석하는데 참 쉽지가 않습니다. 오늘 본문의 주인공은 여호수아가 아닌 모세로 아말렉과 전쟁을 치르게 되는데, 모세가 산 위에 올라가서 지팡이를 손을 들고서 그 손을 치켜들면 여호수아가 전쟁에서 이기고, 손이 내려오면 전쟁에서 지는 과정을 되풀이 하다가 너무 팔이 아프고 피곤하므로 아론과 훌이 모세를 돌에 앉히고 양쪽에서 팔을 받쳐 들었고 해가 지도록 손이 내려오지 않자 아말렉과의 전쟁에서 승리하게 되었다는 이야기입니다.
여기서 우리가 한 가지 조심스럽게 접근해야 할 부분이 있습니다.
주석들을 보면 모세가 산꼭대기에 올라가서 손을 든 것이 다 '기도'라고 나와 있는데, 본문 어디에도 기도라는 말은 나와 있지 않습니다. 물론 기도라는 말이 안 나왔어도 기도일 수는 있습니다. 왜냐하면 유대인들이 기도하는 자세가 여러 가지가 있는데, 하늘을 향해 손을 들고 하는 기도의 자세가 있고, 우리가 생각하기에는 당연히 민족의 영도자인 모세가 전쟁터를 한 눈에 볼 수 있는 산꼭대기에서 손들고 기도를 한 것이라고 생각하는 것은 너무나 당연하게 여겨집니다만, 과연 그것이 기도겠는가? 하는 의문이 생깁니다.
지금 제가 말하는 것은 기도의 중요성을 부인하는 것이 아니고, 본문에서 언급되고 있는 모세의 손을 든 행동이 우리가 생각하는 "전쟁을 이기게 해주세요."라는 간구의 기도였겠는가를 질문하는 것입니다.

주석들에 보면 "손을 든다는 것은 간구하는 표현을 말하는 것이고, 손을 내린다는 것은 기도의 중지를 상징한다. 그러므로 기도가 중지되면 졌고 기도가 계속되면 이겼던 것이다"라고 하고, "그리고 보잘 것 없는 이스라엘이 강력한 아말렉을 물리칠 수 있었던 것은 아론과 훌이 기도에 동참했기 때문이고, 그러므로 합심기도가 얼마나 엄청나고 놀라운 결과를 초래하는지를 실감하게 한다."라고 말합니다만, 사실 아론과 훌의 관심은 어떻게 모세를 돕느냐는 것이었지 엄밀하게 말해서 그들의 마음을 차지하고 있었던 태도와 활동은 기도가 아니었습니다.
또, 한 가지 짚고 넘어가야 할 것은, 그런 식으로 생각할 때에 민족이 공동체로 출발하여 첫

전쟁을 경험하고 있으니 얼마나 모세의 마음이 절실했겠습니까? 그 마음이 절실했으니 우리는 당연히 승리하게 해달라는 기도를 했을 것이라고 생각하는데, 그렇게 간절한 시간에 과연 성경에서의 기도의 모습은 어땠는가를 봅니다.
주님은 너무 간절하다 보니 땀에서 피가 섞여 나올 정도의 기도를 겟세마네에서 드리셨는데 그 기도를 드리실 때에 모습은, 마26:39절에 "조금 나아가사 얼굴을 땅에 대시고 엎드려 기도하여 이르시되…"라고 나옵니다.
서거나 돌에 앉아서 손을 들고 기도하신 것이 아니라 땅에 엎드려 기도하셨고, 또 엘리야 선지자도 이만치 간절한 순간이 있었는데 사역의 절정이라고 할 수 있는 갈멜 산에서 바알과 아세라 선지자 850명과의 대결의 현장에서 불을 내려달라고 할 때의 기도는 하나님을 향하여 기도의 동기를 자세하게 설명을 하며 진행이 됩니다. 손을 들었다는 이야기는 없고 왕상 18:36-37절에 "…선지자 엘리야가 나아가서 말하되… / 여호와여 내게 응답하옵소서 내게 응답하옵소서…"라고 합니다. 이렇게 대결을 벌이는 이유가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중에서 유일하게 하나님이신 것과, 내가 하나님의 종으로 일을 하고 있다는 것을 드러내달라는 동기를 강조하는 기도를 해서 불이 내렸고, 두 번째 사건으로 가뭄이 끝나고 비가 내리게 해달라고 할 때에 엘리야의 기도 자세를 보면 모세가 산꼭대기로 올라간 것처럼 엘리야가 갈멜 산꼭대기로 올라갑니다. 왕상18:42절에 "…땅에 꿇어 엎드려 그의 얼굴을 무릎 사이에 넣고"라는 기도의 모습이 나옵니다.
사람이 간절하면 간절할수록 사지가 오그라들게 되어 있는 것이 정상인데 어떻게 사지를 쭉 펴고 손을 들고 기도를 하겠습니까? 민족이 전쟁에서 이기는 것이 기도의 내용이었다면, 손이 내려온다고 기도를 못할 이유가 없었을 것이고, 전쟁에 이기게 해달라는 간절한 기도를 꼭 손을 들거나 내려오는 것으로 상징할 필요가 없는 것은, 겟세마네 동산에서의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과 다르게, 모세가 간절히 기도했는데 아론과 훌이 동참해서 열심히 셋이서 기도했다고 기록하면 됐을 것이므로, 모세가 산꼭대기에 올라가서 하나님의 지팡이를 들고 손을 든 것과 아론과 훌이 그 손을 받쳐서 들었던 것은, 전쟁을 이기게 해달라는 기도를 했다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손을 든 것도 체조할 때처럼 양팔을 귀에 붙여서 든 것이 아니고, 아론과 훌이 양 옆에서 들었으니 두 시 방향과 열 시 방향으로 팔을 벌려서 들고 있었던 것으로 (귀에 팔을 붙여서 올리려면 그건 팔을 드는 것이 아니라 양 옆에서 밀어 붙이는 것이죠.) 양 옆으로 자연스럽게 들고 있었다는 것인데 이것이 무엇을 말하는 것일까요?

문맥을 보면 르비딤에서 하나님을 시험하는 사건이 있었는데 왜 하나님을 시험했습니까?
이 세상 삶에 대해 마음이 죽어서 고인의 상태가 되지 못하고, 하나님께 마음을 다 드려서 이 세상의 삶이 유품이 되지 못한 상태로, 여전히 내 마음이 삶에 대해서 내가 갖는 소원이 있고, 내가 그려놓은 이상적인 그림과 기준이 내가 원하는 방식과 모양대로 이루지지 않을 때에

하나님의 역할을 평가하는 자리에 서게 된다는 이야기를 했고, 다시 말해 삶이 위탁물이 되어서는 안 된다는 것으로 내가 위탁자가 되고 하나님은 위탁받는 수탁자로 전락함으로써 내 삶을 운용하고 평가받는 자리에 서게 되시면 안 된다는 르비딤의 사건과 교훈을 통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러면 이렇게 교훈했던 내용이 삶에서 실천이 되려면 어떻게 해야 하느냐는 것입니다.

실제로 삶의 현장에서 하나님께 내 삶의 현장을 유품으로 드리고 내 마음은 삶에 대해 고인이 됨으로, 내 마음은 하나님에 대해서만 살아 움직이는 마음이 되고, 유품이 된 내 삶은 하나님께서 쥐시고 당신의 뜻대로 이끌어 가실 때에 어떤 일이 일어나고, 어떻게 해야 그렇게 될 수 있는가를 오늘 본문이 가르쳐주고 계십니다.

르비딤에서의 교훈을 실제 삶에서 보여주시기 위한 것으로 아말렉과의 전쟁을 허락하셨고, 이 아말렉과의 전쟁은 전쟁을 위한 전쟁이 아닌 것은 가나안 정복전쟁이 본격적으로 일어나기 전의 일입니다.

그렇다면 홍해의 샌드위치 사건 때의 “가만히 서서 보라”고 하셨던 것처럼, 아말렉과의 전쟁에서도 가만히 있으면서 하나님께서 다 하시면 되는 것 아니었습니까?

예를 들어 이스라엘 진영은 멀쩡하고 모래바람이라도 불게 해서 다 날려버리거나 파묻혀 버리게 하실 수 있는 것 아닙니까?

5~6일 만에 도착할 수 있었던 가나안 땅에서 방향을 틀어 남쪽으로 향한 이유가 블레셋과 전쟁을 보면 백성들이 두려워 할까봐 그렇게 하셨는데, 그러한 일이 있고서 대단한 변화가 있을 만큼 시간이 지난 것도 아닌데 아말렉과 전쟁을 하게 하신 이유는, 아말렉과의 전쟁은 정복을 위한 전쟁이거나 이스라엘 백성의 보존을 위한 전쟁이 아니라, 교훈적인 의미에서 하나님께서 일부러 하게 하신 전쟁으로, 삶에 대해서 죽으라는 것이고 오직 하늘에 계신 하나님께 마음을 다 드려서 사랑하고 우리 마음의 만족과 기쁨을 하나님만으로 채우라고 하시는 것인데, 비현실적이라고 하고 뭐라고 하는데 같은 상황에서 이스라엘 백성도 아마 그랬을 것입니다.

그러므로 아예 전쟁이라는 가장 치열한 삶의 상황을 만들어 놓으시고, 그 치열한 삶의 상황에 대해서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 전체의 대표로서 죽고 전쟁이라고 하는 삶의 현장을 유품으로 남기는 것을 보여주시는 것이고, 그렇게 유품으로 남겼을 때에 진정한 승리가 일어난다는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민족이 처음으로 싸움을 하고 있는데 나는 손을 들고 있어야 합니다.

전쟁에 기도로서 동참하려면 손을 모아야 하고, 엘리야처럼 무릎 사이에 머리를 집어넣거나, 예수님처럼 땅에 엎드려서 땀에서 피가 나올 정도로 간절히 기도를 해야 했습니다. 그런데 사지를 펴고 손을 들고 있다는 것은 아무것도 할 수가 없는 상태로 아론과 훌이 손을 붙잡았다는 것이 좋은 의미가 아니라, 모세의 손을 꽉 붙잡고 두 손 모아 기도도 못하게 하고 있는 것이고, 눈으로는 전쟁을 다 보고 있는데 간절한 마음으로 전쟁에 참여하지 못하게 하는 것으로

이것이 르비딤의 교훈으로, 하나님을 수탁자로 여기고 하나님을 시험하는 삶을 살지 말라고 하신 후에 보여주신 것입니다. 전쟁터에서 같이 죽느냐 사느냐 하는 현실의 문제를 어떻게 유품으로 여기고, 내가 그것들에 대해 고인이 될 수 있는가를 보여주는 것이기 때문에 어마어마한 전쟁인 것으로 두 가지 전쟁입니다.

우리가 쟁취해야 될 승리는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하늘에서 정하신 뜻이 이 땅의 모든 방해를 뚫고서 이루어지는 것이 승리일 뿐, 우리의 뜻이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고, 우리가 원하는 목적을 이루기 위해 라이벌을 짓밟고 그 자리에 서는 것이 승리가 아니고, 내가 짓밟히거나 어떻게 되든지 상관없이, 어떤 모양이든지 간에 하늘에서 정하신 하나님의 뜻이 이 땅에서 이루어지는 것이 승리입니다.
세상의 삼라만상들은 하나님께서 정하신 뜻이 수용되고 있지만, 우리는 인격적인 존재로 자발적으로 그 하나님의 뜻을 수용하지 않으면 이루어질 수 없는데 그렇게 되면 지는 것입니다. 승리는 하나님이 하늘에서 정하신 대로 그 뜻이 내 삶의 현장에서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예수님의 겟세마네에서의 기도가 막14:36절에 "…나의 원대로 마시옵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라는 내용으로 드러나고, 이 승리가 에덴동산에서부터 이야기되었던 것입니다. 선악과를 세워두셨던 이유는 내 뜻이 죽은 것이 선악과를 따먹지 않는 상태임을 알게 하시기 위해서입니다. 하나님의 판단과 뜻이 아담의 삶에서 이루어지고, 방해받지 않기 위해서는 선악과를 따먹지 말았어야 했는데, 선악과를 따먹고 말았기 때문에 오늘 본문에서처럼 모세는 자기 생애에서 처음으로 제단을 쌓고 그 이름을 "여호와 닛시"라고 붙입니다.
이 구약성경의 제단은 다른 종교들에서처럼 신에게 아부하기 위한 제물을 드리는 곳이 아니고, 희생 제물들은 다 이 세상에 대해서 죽지 못하고 내가 소원하고 계획을 가졌던 내가 제사물이 되어 죽는 것으로 상징되고 이렇게 내가 죽는 것, 내가 두 손 드는 게 승리라는 것이고, 내 뜻과 소원과 계획과 내가 그리는 이상적인 목표가 죽어버리는 그 제단이 바로 여호와께서 이끄시는 승리라는 뜻의 '여호와 닛시'로 이것을 가르쳐 주시는 것입니다.

이 항복이 엄청난 싸움의 과정을 통해서 도달할 수 있는 것입니다.
쉽게 말하면 하나님의 뜻이 하늘에서 정해졌는데 이 땅에서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그것을 고스란히 인격적으로 받아들일 수가 있어야 하는데, 그렇게 하지 못하게 하는 방해물이 육체입니다. 육체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육체로부터 발생하는 소원과 필요에 대한 나의 느낌과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뜻을 방해하고 그래서 이것과 싸우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겟세마네 동산에서 싸우신 것은 육체를 가지고 있는 인간이었기 때문에 십자가에 달릴 때의 고통과 수치를 아셨고, 하나님으로부터 버림받은 저주의 상태를 아셨고, 이 인간으로서 육체를 가졌기 때문에 생기는 두려움을 이기시는 것으로 하나님이 뜻이 방해받지 않고 이

루어지게 하십니다. 주님은 죽으셨지만 승리가 이루어진 것이고, 주님은 하나님 뜻에 항복하셨고, 항복이 싸움의 목적이고 목표입니다.

우리의 싸움의 목표는 전쟁터와 같은 나의 삶의 현장을 내려다보면서 두 손을 드는 것이고 이것이 싸움입니다.
풍랑만난 배 위에서 주님은 주무셨고 제자들은 아우성을 쳤습니다. 우리 입장에서는 예수님보다도 제자들이 훨씬 더 가깝습니다. 모세가 산 위에서 자기 민족의 전쟁을 내려다보면서 손을 들고 있었던 것은, 풍랑 속에서 예수님처럼 잠을 주무시는 상황으로 옮겨가는 것을 말하는 것이므로 얼마나 큰 싸움이 우리 속에 있어야 되겠습니까?
사실 풍랑 만난 배에서는 예수님의 몸과 풍랑이 싸우고, 풍랑이 우세해서 예수님의 몸을 죽일 기세로 달려들고 있습니다만, 예수님의 마음은 손들고 계신 것입니다. 산 위에서 남의 일처럼 바라보고 그 일에 대해서 죽는 것입니다.
모세가 모든 이스라엘 백성의 마음의 대표로 했던 일은 눈앞에서 전쟁이 벌어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 전쟁에 대해서 죽고 전쟁보다도 먼저 하나님께 마음을 드려서 전쟁이 나의 유품이 되어 버리는 것이 삶의 현장 중에 일어날 수 있는 가장 치열한 상황인 전쟁터에서 수행했던 것입니다.
우리에게 변명거리가 없습니다. 전쟁을 보면서 전쟁이 나의 유품이 되도록 죽어버리고, 내 마음은 이 전쟁터 같은 삶의 현장보다도 하나님이 먼저라는 것을 보여준 것이고, 이 손을 든 모습이 그대로 옮겨져서 십자가에서 이루어진 것이고, 그 십자가에서 죽으신 주님의 모습이 그대로 우리가 포개져야 될 모습인 것입니다.

모세가 선 산꼭대기가 갈보리 산꼭대기에 있는 십자가로 옮겨지게 된 것입니다.
모세가 하나님의 지팡이를 쥐었다는 것은, 하나님께서 이 땅의 선민에 삶에 대해 간섭하시고, 당신의 삶으로 여기셔서 이끄시겠다는 약속으로, 그 약속을 따라 지팡이에서 선민의 삶과 이방인들의 관계에 대해 끝없이 하나님이 나타나셨고, 우리는 하나님께서 알아서 하실 것이라는 그 약속을 쥐고 세상에 대해 죽는 것입니다.
“내가 책임진다. 너희의 삶을 향한 나의 뜻이 하늘에서 정해져 있으니 그 뜻이 땅에서 이루어지는 승리를 위해 너는 멍석을 깔아라. 그러면 내가 하늘에서 정한 뜻대로 이 땅에서 이루어나갈 것이고, 너의 삶이 하늘에서 정한 뜻이 땅에서 이루어지는 승리로 가득 차게 될 것이다. 너는 그 승리를 누리기만 해라. 다만 너는 육체에서 시작되는 너의 생각 너의 판단 너의 두려움 너의 걱정으로 자꾸만 나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방해하려고 하는 너의 죄와 싸워라”
오늘 아말렉이 상징하는 죄 때문에 육체로부터 생기는 내 마음속에 주어지는 나의 소원과 나의 판단을 이기기만 하면 되는 것입니다.

본문 14절 하반절에 “내가 아말렉을 없이하여 천하에서 기억도 못 하게 하리라”고 하셨습니다.
이 말은 십자가를 통해서 내 육체가 있기 때문에 생겨나는 나의 생각과 나의 판단이 영원히 도말되도록 하시겠다는 것이고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계획이셨습니다.

‘손을 들었다’
이 말은 르비딤 사건의 연장선상에서 생각할 때에, 민족의 전쟁터를 바라보면서 그 현장에 대해 죽으라는 이야기를 하신 것이고, 하나님께서 책임지시겠다고 하시니 하나님의 약속이라는 지팡이를 잡고 항복하는 것입니다. 이 땅에서의 삶은 하나님이 정하신 뜻이 있으니 그 뜻이 다 이루어지는 것이 승리이므로 너는 마음을 세상에 쏟지 말고 죽어서 나에게로 보내라는 것입니다.

이 손 들고 항복하면 이기는 승리! 이 승리로 가득차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아버지!
일이 주어질 때마다 두 손 모으고 간절하게 그 일에 대해 기도하는 것이 아닌, 두 손 들기 위해서 기도하게 하여 주시고, 그 문제에 대해 죽기 위해 기도하게 하여 주시고, 그 절실하고 급박한 문제들이 유품이 되기 위하여 기도할 수 있게 하여 주셔서, 항복의 지점에 도달하게 하시고 그리하여 기필코 그 삶에 문제에 대해 하늘에서 정하신 뜻이 내 소원과 내 판단과는 관계없이 하나님의 뜻을 따라 성취되는 승리로 가득 찬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